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 조례안 가결

부안군의회 이강세 의원(부안, 행안 지역구)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열린 제30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에 근거해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7~15세 학생들은 부안군의회에서 운영하는 의회 교실에 참여해 실제 지방의회 의원들의 회의 진행 과정을 직접 방청하고 민주주의 의사결정과 입법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은 지난 2019년 제8대 부안군의회 1주년을 기념해 처음 시행해 참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부안군의회는 올해부터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을 연 2회로 정례화하고 참여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단체는 30명 이내로 참여 학생들을 구성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부안군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소방서, 화재정보조사 직무교육

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화재정보조사반 편성에 따라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점검능력 향상 및 관련 법규 적용 등 효율적인 조사를 실시코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터널 안전 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라길성 소방시설관리사를 초빙하여 문수산 터널을 방문,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안착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주요내용은 ▲제연설비 기동장치, 제연반 점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동작시험, 저장용기 점검 ▲육소화전설비 내외부 확인, 기동펌프 점검방법 ▲무선통신보조설비 접속단자 연결 및 수신감도 점검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외에도 화재정보조사 요원이 실무로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하고 소방시설을 점검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토의해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코로나19 총력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선별진료소 운영 다중이용시설 매일 방역, 시설휴관 등

부안군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추세에서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4일 오전 10시 현재 부안군에는 확진자나 접촉자는 단 한 명도 없으며 그동안 능동감시대상자 2명과 자가격리자 3명 등이 발생했지만 최종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모든 격리조치가 해제된 상태다.

군은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3단계 경계단계(현재 4단계 심각단계 격상)로 격상되자 권익현 부안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8개반 10여명 규모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부안군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을 수시로 찾아 관련 직원들을 격려하고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해 부안군보건소와 부안성모 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격벽 앰블런스 및 이동형 X-ray, 열화상카메

라 등 방역장비를 확보했으며 유증상자 발생에 대비해 공무원 132명으로 자가격리자 대응반을 구성했다.

대응반은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면 전담으로 1일 2회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생활용품 전달 및 보건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 방역사업을 위한 예비비 3억여원을 편성해 마스크 11만 4000개, 손소독제 1만 2000개, 일반소독제(살균제) 1만개 등을 확보해 군민과 유관기관, 경로당, 식품접객업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보급했다.

오는 11일에는 여객터미널과 노래방, PC방 등 부안군 관내 다중이용시설 330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 전파 차단을 위한 일제소독도 실시된다. 방역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관내 유관기관·단체·마을의 대규모 행사 자제를 권고했으며 부안누에타운과 부안청소년수련관, 줄포만갯벌생태공원 등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휴관했다.

부안상설시장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관내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200여대에 대해 매일 방역소

독을 하고 있으며 관내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30여곳에 대한 방역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감염병 재난상황관리 및 자원 지원, 방역활동 및 환경관리,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응, 부안군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관리, 피해보상 접수 지원 등 각 관과소·읍면별로 코로나19 대응방안 보고회를 갖고 향후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최악의 불경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안군 직원들이 동참해 군청 구내 식당 휴무일을 기존 월 2회에서 월 8회로 확대하고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하는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안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5%→10%) 행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 부안톡 등에서 부안군 코로나19 현황 등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는 위기상황이지만 군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활동도 중요하지만 군민 모두의 동참이 절실하다"며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확진자 발생지역으로의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코로나19 확산방지 성금기탁 이어져

아산면이장단협의회 및 아산면새마을부녀회 등

고창관내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각계각층 이웃돕기 성금 기부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아산면이장단협의회(회장 강희문) 및 아산면새마을부녀회(회장 김혜경) 임원들이 방역물품 지원 등에 사용해 달라며 각각 100만원을 고창군에 기탁했다.

강희문 아산면이장단협의회장은 "행편이 어려워 마스크 등을 사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며 "우리 주변의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방역물품이 지원될 수 있게 써 달라"고 당부했다.

참바다영애조합법인(대표 김중화)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 달라며 500만원을, 대경스틸산업(주) 고창지점(대표 정찬원)에서 500만원을, 성송면 소재 음식물쓰레기 재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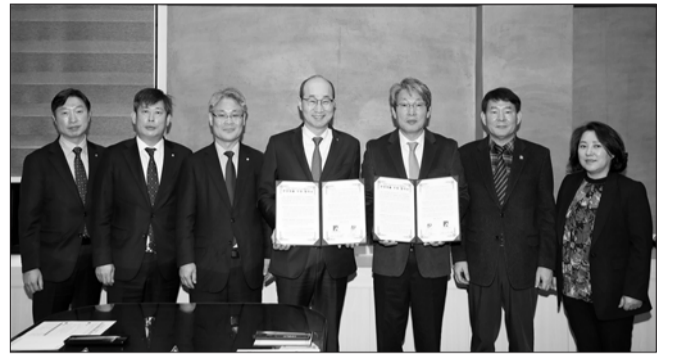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아산면이장단협의회 및 아산면새마을부녀회임원들이 방역물품 지원 등에 사용해 달라며 각각 100만원을 고창군에 기탁했다.

용 퇴비업체인 (주)동남바이오(대표 김정완)에서도 200만원을 기탁하는 등 관내 기업들의 기부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방역물품 구입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주변에 이웃들에게 써 달라며 심원면에 살고 있는 유영대 학생이 대학교 합격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는 4일 정읍시청 소회의실에서 전북은행과 분양대금 대출 협약을 체결했다.

정읍시-전북은행, 분양대금 대출협약식

자금 조달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 농공단지 분양 활력 기대

정읍시는 4일 정읍시청 소회의실에서 전북은행과 분양대금 대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정읍 철도농공단지 및 식품농공단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박종일 경제환경국장과 오선의 철단 산업과장과 이성란 전북은행 부행장, 김동형 지역센터장, 김영민 영업추진 부장, 서무원 전북은행 정읍시청 지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은행은 철도농공단지와 식품농공단지 분양대금의 20%를 납부한 기업에 대해 중도금 80%를 대출하게 된다.

이 같은 금융지원은 자금 조달에 대한 기업의 부담 완화를 물론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대한 사업인 산업단지 분양과 기업 유치에 더 나은 투자 여건 조성에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이번 금융협약 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정읍시에 동지를 틀 수 있도록 기업 유치를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업단지 분양 촉진과 기업 유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3년 미만의 신규법인의 투자 조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3년 미만 신규 기업들의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청년 주택 조성사업 본격화

정읍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정읍 시기 어울림 플랫폼(청년 주택) 조성사업이 본격 공사에 착수한다.

어울림 플랫폼(청년 주택) 조성사업은 지난 2017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기지형)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2021년 9월까지 도시재생 네트워크센터(166㎡)와 행복주택 17세대를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구 금강모텔 철거로 사업 시작을 앞둔 이후 사업에 필요한 설계와 각종 행정절차 및 사업시행사 선정을 완료했다.

네트워크센터는 마을 투어 정보센터의 기능과 원도심 내 청년창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브랜드 창출과 디자인 개발, 웹페이지 구축 등 청년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 노약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인근 빈터를 활용해 조성한 청년 커뮤니티 광장에 젊은이들의 길거리 공연과 버스킹이 가능한 소규모 무대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청년 주택과 연계한 청년 문화예술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어울림 플랫폼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협업해 이뤄낸 사업으로 다른 지역 도시재생사업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공동체 활동 공간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시설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descriptions, and gift set options.